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캄보디아

Kingdom of Cambodia

2019년11월20일 | 책임조사역(G3) 이광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81천 km <sup>2</sup> 	<b>인구</b> 16.49백만 명 (2019 <sup>f</sup> ) 	<b>정치체제</b> 입헌군주제 	<b>대외정책</b> 친중국 외교 
<b>GDP</b> 267.30억 달러 (2019 <sup>f</sup> ) 	<b>1인당GDP</b> 1,620.64 달러 (2019 <sup>f</sup> ) 	<b>통화단위</b> Riel 	<b>환율(U\$기준)</b> 4,069.50 (2018) 

-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1953년 11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입헌군주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국왕이 국가원수이나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 중임.
- 대표적 산업인 봉제 산업 수출과 소비 증가를 바탕으로 최근 7%대의 경제성장세를 지속 중이며,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액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규모 대비 안정적인 수준의 외채 비중을 유지 중임.
- 2018년 7월 총선에서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하원 125석 전(全)석을 차지하며 집권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선거 전 야당 강제 해산 및 언론사 탄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비판적인 EU,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음.
- 태국 만 연안에서 발견된 해상 유전에서 2020년 말부터 원유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7. 10. 30 외교관계 재개 (북한과는 1964. 2. 28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1964), 투자보장협정(1997), 경제기술협력협정(1997), 항공운수협정(2001), 문화협력협정(2006),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06), 범죄인인도협정(2011), 무상원조협정(2014)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572,856	603,846	660,426	면직물, 자동차, 알루미늄
수입	239,773	261,326	314,477	의류, 산업용 전기기기, 잡화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923건, 2,795,507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f</sup>
경제성장률	7.0	6.9	7.0	7.5	7.0
소비자물가상승률	1.2	3.0	2.9	2.4	2.2
재정수지/GDP	-0.6	-0.3	-0.8	-0.8	-1.3

자료: IMF, EU

### 봉제품 수출 및 소비 확대로 7%대 경제성장세 지속

- 캄보디아 경제는 2018년 봉제품 수출 확대 및 구매력 증가에 기반한 민간소비(GDP 대비 82.2%)의 견조한 확장세를 바탕으로 전년대비 7.5% 성장하였음.
- 또한 봉제산업의 성장, 건설업 활황 및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연평균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임.
- **(봉제산업)** 봉제(의류 및 신발) 산업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제조업으로,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73%를 차지하였음. 2018년 전체 봉제품 수출의 39.1%는 EU로, 29.7%는 미국으로 판매되었음.
- 캄보디아의 봉제산업은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캄보디아를 포함한 저개발국의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적용 중인 EU와 미국은 캄보디아 봉제품의 주요 수입국으로 캄보디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건설업)**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 중 경제성장세 대비 상대적으로 개발 수준이 낮은 캄보디아는 2010년 외국인인 부동산 소유 규제가 완화된 이후 부동산 건설 붐이 일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힘입어 대규모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 캄보디아 국토개발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0~17년 외국기업에 의한 부동산 개발은 총 287건, 총 투자 금액은 43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그중 중국 기업의 부동산 개발은 110건, 투자규모는 16.6억 달러임.
- IMF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9년 캄보디아 경제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중국 경기 둔화 전망 여파로 성장률이 다소 낮아져 전년대비 7.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한편, 2019년 8월 캄보디아 정부는 EU와 미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특혜 철회 가능성, 취약한 경제성장 기반 등을 근거로 2020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7.1%에서 6.5%로 하향 조정하였음.

경제성장률 전망(%)	세계은행	IMF	ADB	캄보디아 정부
2019	7.0	7.0	7.0	7.0*
2020	6.9	6.8	6.8	6.5

자료 : 각 기관 발표자료

\* 캄보디아 중앙은행 전망치

## 국내경제

### 2%대 수준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지

- 최근 5년 간 지속된 7% 대의 높은 경제성장세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통용화(Dollarization)의 영향으로 최근 2%대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 중임.
- 2018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캄보디아 정부의 유류세 인하, 4분기 이후의 국제유가 하락 추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하락한 2.4%를 기록하였음.
- 달러 통용화는 경제 전반에 공식 화폐가 아닌 달러화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현상으로, 2019년 3월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제는 2014~17년 중 달러화 사용 비중이 전체 거래의 90%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달러화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달러화는 1992년 캄보디아의 내전 종식 및 체제 안정을 위한 UN 평화 유지활동 기관 설립 등의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후 급속하게 캄보디아 경제 내에 통용되었고 현재 공식 화폐인 리엘(Riel)은 주로 거스름돈이나 소액거래에 활용되는 실정임.
- 캄보디아 국세청은 2019년 4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리엘화 표시로 발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리엘화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총 대출금의 최소 10%를 리엘화로 사용할 것을 재차 권고한 바 있음.

###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심화 전망

- 캄보디아는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불평등, 빈곤 개선을 위한 정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2019년 예상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3% 수준이나, 향후 세출이 세입을 크게 초과하여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IMF는 캄보디아 재정수지가 2021년 GDP의 -2.0%를 초과한 이후 2024년 GDP의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 캄보디아 정부는 2019년 6월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사회적 형평성의 보장, 세수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위해 세수 제도의 현대화 등을 포함한 2019~23년 국고예산 확보 전략을 발표하는 등 세제 개편을 꾀하는 중임.
- 캄보디아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세수는 1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6% 증가하였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f</sup>
경 상 수 지	-1,567	-1,687	-1,743	-2,912	-2,644
경상수지/GDP	-8.7	-8.4	-7.9	-11.9	-9.9
상 품 수 지	-3,949	-3,846	-4,278	-5,844	-6,241
상 품 수 출	9,336	10,273	11,224	12,963	14,819
상 품 수 입	13,285	14,119	15,502	18,806	21,060
외 환 보 유 액	6,761	8,245	11,105	13,220	15,998
총 외 채	9,328	11,204	11,898	12,475	13,162
총외채잔액/GDP	51.6	55.9	53.6	51.0	49.2
D.S.R.	5.7	5.2	3.7	3.7	3.2

자료: IMF, EIU

### GDP 대비 10% 대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캄보디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최근 경제성장 지속 및 건설업 활황이 소비재,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증가로 이어져 상품수지 적자가 크게 누적되고 있음.
- 한편, 관광객 유입 증가에 힘입은 서비스수지 개선이 경상수지 적자 폭을 일부 상쇄하고 있음.

\* 상품수지(억 달러) : -42.8('17) → -58.4('18) → -62.4('19<sup>f</sup>)

서비스수지(억 달러) : 18.6('17) → 24.1('18) → 28.5('19<sup>f</sup>)

자료: IMF, EIU

- EIU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경상수지 적자 추세는 점차 확대되어 2022년 GDP 대비 11.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능력

### 안정적인 수준의 외채상환능력 보유

- 2018년 캄보디아의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9.0% 증가한 13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동 규모는 월평균수입액 대비 6.7개월, 단기외채 잔액의 4.5배로, 캄보디아의 외채상환능력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었음.
- 2019년에도 FDI 유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대비 21.0% 증가한 1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FDI 순유입액(억 달러) : 18.2('15) → 24.8('16) → 27.9('17) → 31.0('18)

FDI 순유입액(GDP 대비 비중) : 10.1('15) → 12.4('16) → 12.6('17) → 12.6('18)

자료 : World Bank

### 경제규모 대비 외채 비중은 양호한 수준

- 총외채잔액은 최근 5~6%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경제성장률보다 낮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말 예상치는 49.2%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총외채 중 중장기채무의 비중이 2018년 기준 76.4%로 외채구조가 양호한 편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원리금상환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 말 기준 3.7%를 기록하였고, 수출 증가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2019년 말 3.2%로 낮아질 전망이다.

\*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 7.8('15) → 7.7('16) → 6.0('17) → 7.1('18) → 7.0('19<sup>f</sup>)

\*\* D.S.R.(%) : 5.7('15) → 5.2('16) → 3.7('17) → 3.7('18) → 3.2('19<sup>f</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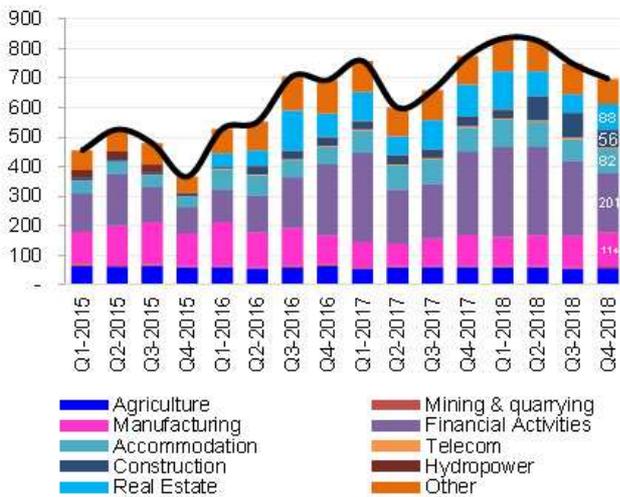
자료 : OECD

##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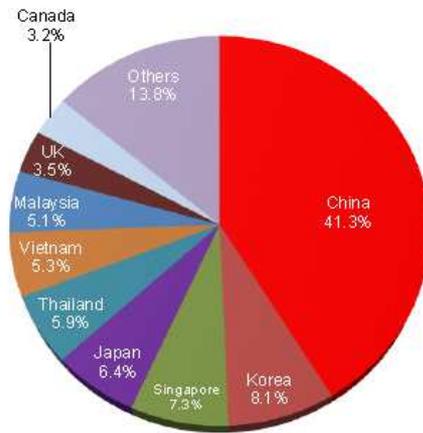
### FDI 유입 및 건설 붐에 따른 금융 부문 과열 우려

- 2019년 4월 캄보디아 중앙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캄보디아에 유입된 FDI는 주로 금융(34%), 제조업(14%), 건설(8%) 부문으로 유입되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액이 전체의 41.3%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분야별 FDI 유입 규모>



<국가별 FDI 유입 비중>



자료 : 캄보디아 중앙은행, 개발위원회

- 2018년 캄보디아의 GDP 대비 민간 부문 앞 국내여신 비중은 99.6%로, 5년 전에 비해 약 2배 성장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또한 주변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경제규모 대비 과다한 수준임.

국내여신 /GDP(%)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2018	144.6	133.3	121.8	99.6	49.9	38.8	25.3

자료 : 세계은행

- 또한, FDI 유입 지속 및 건설·부동산 부문의 활황은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나, 부동산 붐에 편승한 과도한 여신 확대는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의 건설 및 부동산 붐은 국내 및 중국 등의 투기적 목적에서 비롯된 공급 확대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따라서 향후 막대한 FDI가 보다 생산적인 분야인 제조업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는 141개국 중 106위이며,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은 190개국 중 144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성장잠재력

### 석유 생산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 전망

- 캄보디아 정부는 1995년 태국만 연안의 자국 영해에서 발견된 해상 유전(예상 원유 매장량: 20억 배럴\*)에서 원유를 시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0년 말 원유가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될 것으로 자체 전망 중임.
- 원유 시추 프로젝트는 최초 발견 이후 국제유가 변동, 캄보디아의 사업 추진 경험 미숙 및 사업 참여 기업 변경 등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2018년 10월 싱가포르 석유 및 가스회사 KrisEnergy가 최종 투자 결정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 British Petroleum의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에 따르면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은 1조 7,297억 배럴로 추정되며 국가별 매장량 순위는 베네수엘라(3,033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2,977억 배럴), 캐나다(1,678억 배럴) 순으로, 캄보디아의 매장량 비중은 전 세계 기준에서 미미한 수준임.
- 이에 맞춰 2019년 7월 석유개발사의 의무, 관할 당국의 관리 등을 규정한 석유생산관리법이 제정, 발효되면서 석유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1996년부터 논의되어 온 동 법안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생산된 석유의 최대 25%를 국내시장에 공급하도록 투자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석유 수출을 금지할 수 있음. 또한 계약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함.
- 캄보디아 광물에너지부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연간 석유 소비량은 약 1,780만 배럴로, 현재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부터 전량 수입 중임.

## 정책성과

###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 목표 달성

- 캄보디아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로 대표되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캄보디아 정부는 관광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200만 명의 중국인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China Ready” 전략을 발표하고 실행하였음.
- 그 결과 2018년 연간 중국인 방문객이 2.03백만 명을 기록하여, 당초 계획 대비 2년 앞서 목표를 달성하였음. 이러한 성과는 캄보디아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중국 친화적인 세부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인 방문객은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32.6%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인 방문객의 약 25%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중국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에 따른 인적 교류 활성화에 힘입은 결과임.
- 캄보디아 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620만 명이며, 관광 수익은 20% 증가한 4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한편, 앙코르와트 입장권 판매사에 따르면, 2019년 1~7월 간 앙코르와트 입장권 수입은 62.3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 10.6% 감소하였고, 관광객 수 역시 약 140만 명으로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관광객 감소의 원인으로 앙코르와트 유적군 입장료 인상, 씨엠립 지역의 무질서, 중국인에게 편중되는 관광 서비스 등이 제기되어, 이의 해결이 향후 관광업 성장을 위한 과제로 분석됨.
- 또한, 태국, 베트남 등 인근 경쟁국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캄보디아의 비자 신청 절차는 까다롭고 긴 시간이 소요되어 상대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비자 면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

## 정치동향

### 훈센 총리의 장기집권으로 정치적 혼란은 감소했으나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

- 2018년 7월 29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훈센 현(現)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캄보디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125석 전(全) 석을 차지하였음. 훈센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리로 2023년까지 총 38년 간 집권하게 되면서 정권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한편, 훈센 총리는 총선 승리 및 집권 연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CNRP)의 강제 해산, 야당 대표 구속, 언론 통제를 자행하였고, 그 결과 총선이 제1야당 없이 치뤄지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EU,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보복 조치로 기존에 캄보디아에 주어지던 무역특혜 조치의 철회 여부를 검토 중임.

### 서방 국가와의 갈등 및 전(前) 여당 대표의 귀국 관련 정치적 혼란 발생 우려

- EU,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훈센 총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훈센 총리의 정적인 삼랭시(Sam Rainsy) 전 CNRP 대표 대행이 망명생활을 마치고 2019년 11월 귀국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고조되고 있음.
- 삼랭시는 본인의 귀국은 민주주의와 경제가 위기에 처한 캄보디아에서 민주주의 재건과 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음. 한편, 삼랭시는 태국을 경유하여 육로로 귀국을 시도하다 태국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였고 11월 15일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임.
- 11월 13일 캄보디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삼랭시에 의한 쿠데타 기도가 완벽하게 좌절되었고, 질서와 안보가 확보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삼랭시의 귀국 자체는 가능하나 삼랭시는 현재 반역 및 선동죄로 기소된 상태이므로 귀국 즉시 체포할 것을 공언하고 있음.

## 사회동향

### 빈곤 감소 및 복지 개선 추세 지속되나 소요사태 발생 우려

- 세계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1인당 GNI는 2014년 1,020달러로, 1,000달러를 처음으로 상회한 이후 2018년 1,380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 7.8%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또한, 기대수명이 2000년 58.4세에 2017년 69.3세로 늘어났고, 출생아 1,000명 당 5세 이하 사망률이 2000년 106.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15~49세 인구 중 에이즈 환자 비율도 2000년 1.2%에서 2018년 0.5%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복지 부문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한편, IMF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 간의 임금 격차로 인해 전체 인구의 80%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평균 가구소득이 전체 소득의 37.5% 수준에 불과하여, 도시와 농촌 간 불평등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삼랭시 전 CNRP 대표 대행의 귀국 및 국내·외의 민주주의 회복 요구와 관련하여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 국제관계

###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존

- 2019년 5월 중국을 공식 방문한 프락 소콘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양국 간 잦은 고위급 교류에 힘입어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급하였음. 앞서 1월 훈센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에서 2010년 중국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에 이어 캄-중 FTA 체결을 촉구하였음. 양국 정상은 또한 양국 간 무역규모를 2023년까지 100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 2018년 총선 과정에 대하여 비판하고 경제 제재를 준비 중인 서방 국가와 달리 민주주의와 인권,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확장을 추진 중인 중국의 이해관계가 캄보디아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실제로 최근 잇따른 중국과의 고위급 면담은 경제부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음. 양국 간 무역규모는 2018년 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고, 2018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중국인은 200만 명을 넘어 당초 캄보디아 관광부의 중국인 방문객 유입 확대 목표가 조기 달성되고 관광수입 역시 증대되었음.
- 한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캄보디아의 중국에 대한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캄보디아 총외채잔액의 49%를 차지한 최대 채권국이며, 2018년 FDI에서도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국(41.3%)임.
- 중국에 대한 채무의 쓸림이 과도한 편으로, 2019년 8월 중국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투자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다, 향후 중국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국제관계

### EU,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악화가 경제 제재로 현실화될 우려

- 캄보디아는 그동안 EU 및 미국과의 무역에서 최혜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봉제 산업 등 자국의 수출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었음.
- EU는 저개발국의 무기류를 제외한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인 'EBA(Everything But Arms: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 프로그램으로, 미국은 저개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 GSP)를 적용하여 캄보디아의 수출을 지원해 왔음.
- 그러나 캄보디아와 서방 간의 관계는 2018년 7월 총선 이후 EU와 미국 등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퇴보 및 인권탄압에 대하여 비판하고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냉각되었음.
- EU는 2019년 2월 EBA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하였고, 2019년 11월 12일 1차 보고서가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되었음. EU의 최종 결정은 2020년 2월에 내려지게 되며, 만약 EBA 중단 결정이 내려질 경우 6개월 뒤인 8월 무관세 혜택이 공식 철회됨.
- 2019년 1월 미국 상원에서는 행정부에 캄보디아의 GSP 수혜 자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법안이 발의됨.
- EU와 미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교역상대국이며, EBA와 GSP가 캄보디아 수출품의 대부분에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 시 서방의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의 증가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 온 캄보디아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EBA 철회 시 캄보디아 신발, 의류, 쌀 품목의 예상 수출 감소액은 최대 6.5억 달러이며, 이는 2018년 세 품목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준임.
- 한편, EIU는 EU의 제재는 발효될 가능성이 낮으며 발효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만약 발효될 경우 그 타격이 EU의 비판 대상인 캄보디아 정치 엘리트 세력보다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EBA 철회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회복 여부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

- 캄보디아 정부는 EBA 철회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수출비용 절감을 꾀하는 한편, 정치·경제·외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와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음.
- 주요 외신들은 서방과의 관계 및 민주주의 회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019년 11월 10일 캄 소카 전(前) CNRP 대표의 가택연금이 해제되고, 삼랭시의 귀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국가 전복 모의 혐의로 체포된 야권 인사 70명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결정은 유의미한 변화로 평가하고 있음. 다만, 캄 소카의 반역 혐의에 대한 기소는 취하되지 않았고, 일체의 정치적 활동이나 해외 출국이 금지된 상황임.
- 향후 EU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의 회복 여부가 서방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훈센 총리 타도를 목표로 하는 삼랭시 전(前) CNRP 대표 대행의 귀국 여부 및 이에 대한 훈센 총리의 대응 역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외채상환태도

### 채무재조정 이후 안정적인 원리금 상환 지속

- 파리클럽을 통하여 체결된 총 3차례의 채무재조정 중 1972년 1월과 10월의 2건에 대한 원리금은 모두 상환하였고, 1995년 1월 재조정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1995년 1월의 채무재조정은 1985년 이전의 채무액 총 2.5억 달러에 대한 탕감 및 리스케줄링에 관한 것으로, 비(非)ODA 부분은 2018년 상환을 완료하였고, 현재 ODA 부분 잔액에 대한 상환이 이뤄지고 있음(2035년 상환 완료 예정). 1985년 이후 채무액에 대한 채무재조정 내역은 없음.
- 2019년 6월 말 기준 캄보디아 앞 OECD 회원국 ECA 지원 잔액은 52.2백만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없음. 또한 IMF도 2018년 11월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Report에서 캄보디아의 단기적인 외채 상환 불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D1 (2019.11)	D1 (2018.12)
OECD	6등급 (2019.06)	6등급 (2018.06)
Moody's	B2 (2019.10)	B2 (2017.03)

\* 캄보디아는 S&P, Fitch의 평가대상국이 아님.

### OECD, Moody's 신용등급 유지

- OECD와 Moody's는 최근 캄보디아의 견조한 경제성장세와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 중임.

- 캄보디아 경제는 봉제품 수출, 관광객 증가 및 건설업 활황 등에 힘입어 7%대 성장을 기록 중이며,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2018년 7월 총선 결과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 기반이 확보되면서 정치적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선거 과정에서 제1야당 강제 해산 등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봉제 산업의 주요 수출국인 EU와 미국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특혜 조치 철회를 검토 중이며, 제재가 가시화될 경우 캄보디아 수출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또한, 서방과의 관계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한층 더 가까워진 중국에 대한 의존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FDI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 향후 서방과의 관계 개선 노력, FDI를 경제발전에 활용하려는 노력 등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국가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